

산 자는 신이 된다

본 문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행전 16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1.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한 말씀을 해석하면, “<주를 믿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죽었다. <영>이 죽은 것으로 본다.” 함이다.
2.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한 말씀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된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죽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 <죽었다> 함은 ‘영’이 죽은 것이지만, 사실상 ‘육’도 죽은 것으로 본다. 왜?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행실을 하지 않는 것>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4.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시대 보낸 자

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5.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놀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놀라신다. 또한 말씀을 듣고도 ‘안 믿을 때’ 놀라시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 놀라신다. 고로 <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6.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고, 깨닫고, 믿고 따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이다. 이는 ‘하나의 육신에 해당되는 부활’이다. 둘째, ‘주가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저 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 이는 보다 ‘영적인 부활’이다.
7. 신약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 주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그 전과 다른 역사가 일어났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8. <섭리사>는 ‘육신에 해당되는 부활’ 곧, 시대를 알고, 하나님과 주를 깨달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은 다 했다. 이제는 ‘두 번째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또 해야 된다.
9. <눈> 한 쪽으로만 보면 시원치 않듯, <다리> 한 쪽으로만 축구를 하면 제대로 못 하듯, <부활>도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시대>에 따라 ‘두 개의 부활’을 해야 된다.
10. <두 번째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

다. 첫째, <육적 부활>로서 육신이 안 죽고 살아서 나온 것이다. 둘째, <영적 부활>로서 육신이 살았으니 그와 같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11. <십리사>는 10년의 십자가 기간을 끝내고 ‘부활’ 되었다. 곧 <육>이 안 죽고 살아 나오는 육적 부활은 했으니, 이제는 ‘영’이 살고, ‘신앙’이 사는 영적 부활을 해야 된다.

12. <근본적인 부활>을 이뤄야 된다.

13. 예전처럼 뛰고 날듯이 해야 살아난 것으로 본다. <선생>도 예전처럼 뛰고 날듯이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몸부림쳐 행하니, 결국 예전처럼 뛰어다니게 되었고, 또 순간 날아서 공도 차게 되었다.

14.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근본적인 부활>을 이루기가 그렇게도 어렵다. 왜? 그동안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15. 지금은 <두 번째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완전한 부활의 때>가 진행 중이다. <부활>이니, ‘부활의 혼인 잔치 역사’가 시작되었다.

16.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행하면 무조건 사는 것이다.

17. <살아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곧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살아난다.

18. <자기 성격, 혈기, 교만, 분노, 자기를 중심하는 것, 자기 생각> 등이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
19. <자기 성격, 혈기, 교만, 분노, 자기를 중심하는 생각>이 안 죽은 사람은 옛 식 그대로, 옛 성격 그대로 행동한다. <옛 식, 옛 성격>은 모두 죽어야 된다.
20. 하나의 밑알이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새싹’이 올라온다. 안 죽으면,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자기중심, 자기 삶이 죽어야 된다. 죽고서, ‘부활의 때’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다.
21. <100% 완벽하게 안 되는 원인>은 100%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마다 100% 완벽하게 하지 않고 빠진 것이 있으니, 100% 죽고서 다시 깨끗이 살아나야 된다.
22. <주>가 살아났으니, 그와 같이 살아나야 된다.
23. 못 날면, <비행기>도 ‘차’가 되어 버린다. 날면, 다시금 고천바가 되고, 산 바가 된다. 고로 주와 같이 자꾸 행해야 된다. 자꾸 행해야 살아난다.
24.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안 하면, <돌아가는 내용>도, <현실>도 모르고, <상대의 마음>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도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 고로 꼭 기

도를 해야 된다.

25. <부활의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행해 주시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꼭 대화해야 된다.